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전주매일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음 5월 5일) 제206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큰 차이 만드는 작은 것 창의도시 우수사례 선정

〈유네스코〉

전주시, 폴란드 세션서 음식솜씨 발굴 등 정책 소개

전주음식 계보 잇기 · 향토음식 명가 육성 등 성과도

전주시가 추진해온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련 정책들이 유네스코 연례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면서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게 됐다.

시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오후 3시 폴란드에서 열린 이 회의 특별 세션에서 세계 180개 도시를 대표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전세계 72개국 180개 도시가 참석 하는 국제적 행사이다.

시는 역동하는 UCCN(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 도시이야기 공유: '큰 차이를 만드는 작은 것'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별 세션에서 180개 도시를 대표해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이 세션은 비교적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확장 영역의 변화로 다른 도시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선정, 해당 도시의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정책들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이 자리에서 △유네스코 전주음식 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 운영 △시민 음식솜씨 발굴 △안심먹거리 캠페인 등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협력 사례를 소개해 전 세계 창의도시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전주음식 계보 잇기 △전주음식 손맛 전수 교육 △향토전통음식 및 전주음식 명인·명가 육성 등 전통음식 문화의 계승과 창의적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전주비빔밥축제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등 도시발전 추진 성과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 유네스코 회원도시들은 매년 4년에 한번 회원도시로서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들을 활동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전주를 포함한 세계 22개 도시들이 활동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사례를 발표한 변문선 시 관광산업과 주무관은 "전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우수사례로 공유하게 돼 긍지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음식창의도시 전주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써 발전하는데 중요한 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회의는 매년 회원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폴란드 크라쿠프와 카토비체시에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다.

/송효철 기자

먹이가 어디 있을까?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난 15일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공원에서 흰뺨검둥오리가 먹이를 찾고 있다.

특검, 최순실 2심서도 징역 25년 구형

"사건의 중대성 깊이 인시 실체적 진실 국민에 밝혀야" 최 "적당이들 하지" 발언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62)씨 국정농단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11차 공판에서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에 밝힘으로서 우려나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구했다.

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도 최씨에게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혐의 중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금 774억원을 받은 것과 삼성으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받은 부분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2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 그 반대급부로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각종 현안 해결 과정에 위법·부당한 직무상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사적 자금 지원, 직무상 편의 제공을 위한 상호 대가 교환이라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빈틈없이 살핀 후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재판 도중 10분 휴정이 선언돼 법정을 나가면서 "적당히들 하지"라고 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뉴시스

매일 INDEX

12면 - 태권도 저변확대 발전전략 발표

16면 - 한옥마을 품바왕 명인전 화보

전북대, QS 세계대학평가 '거점국립대 2위'

6년 연속, 높은 위상 이어… 최근 로이터 평가 거점국립대 1위도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18 세계대학평가'에서 거점국립대 2위, 국내 종합대학 16위에 오르며 최근 높아진 위상을 이어갔다.

최근 세계적 뉴스제공 기업인 로이터가 발표한 '2018 아시아혁신대학평가'에서 거점 국립대 1위에 올랐던 전북대는 QS의 세계대학평가에서도 올해까지 6년 연속 2위를 마크하며 높은 위상을 이어갔다.

이번 QS 세계대학평가는 세계 1,23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계평판(40%), 기업계평판(10%), 논문 피인용(20%), 외국인 교원 비율(5%)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

이번 평가에서 전북대는 교수당 학생비율이 세계 1,233개 대학 중 200위권에 오르며 학생 교육의 질이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됐고, 교수들의 논문 피인용 수 역시 지난해보다 오르며 높은 순위를 주도했다.

특히 세부 지표 분석 결과 외국인 학생 비율도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는 지난 3년 여 동안 대학발전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네임밸류 상승 전략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를 통해 QS 세계대학평가, 아시아대학평가, 영국 타임스고등교육평가, 로이터 아시아 혁신대학 평가 등 최근 수년 간 이어진 글로벌 대학평가에서 거점 국립대 1, 2위를 다투며 높은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색깔 있는 모험인재 양성 월드 클래스 학문 분야 육성 한국적 캠퍼스 구축 등 추진

전북대는 이남호 총장 취임 이후 △색깔 있는 모험인재 양성, △월드 클래스 학문 분야 육성, △가장 걷고 싶은 캠퍼스 둘레길 조성,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구축 등을 4대 브랜드로 정해 발전시키고 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실력과 인성을 함께 키울 수 있는 '레지덴셜칼리지'와 최소 한 학기 이상은 다른 나라나 특정 지역에서 다양성을 경험하게 하는 '오프캠퍼스'와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전격 도입했고, 대학이 자랑하는 7대 세계적 연구소를 육성해 세계를 이끌 연구 분야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국내 대학 가운데 유례가 없는 캠퍼스 주변 생태 자원을 활용해 11.4Km의 둘레길을 조성했고, 한옥 양식의 건물 신축 등 캠퍼스 전체에 한국적인 색채를 가미하며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를 대학의 상징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남호 총장은 "최근 로이터 평가 거점국립대 1위를 비롯해 QS 평가까지 공신력 있는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전북대학교가 전북을 대표하는 자긍심이자 브랜드가 되고 있다"며 "대학이 갖고 있는 우수한 가치를 발굴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간다면 우수 학생과 교수가 우리대학을 찾고, 우수 졸업생이 배출되는 명문대학의 위상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